

행복한 고무신 배



AI도움받아 최현순 씀



행복한 고무신 배





비가 마구 쏟아진 다음 날 아침,
마을 길은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달래는
신이 나서 맨발로 웅덩이를 침범침범
밟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따, 참말로! 어제 비가 그렇게 오지게
퍼붓더니만, 길바닥에 물웅덩이가 겁나
게도 많아버리네!
요것 보라, 침범침범!”



길을 가던 달래는 작은 물웅덩이에 갇혀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고 있는 아주 작
은 송사리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어매, 저것이 머시여? 아구, 짤해라!
애들아, 걱정 붙들여 매고 가만히 있어
잉. 요 짜간한 것들이 갈 데가 없어갓고
요러고 있냐. 내가 얼른 구해줄게, 기돌
려 봐!”



달래는 아끼는 하얀 고무신을 훌러덩
벗어 웅덩이 물을 담고, 송사리들을
조심조심 한 마리씩 건져 올려 고무
신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자, 내 하얀 고무신 배에 타면 암시
랑도 안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요
짜간한 몸뚱이들을 조심조심 옮겨 타
그라. 인자 살았응게 걱정 마라잉!”



달래는 고무신 배를 들고 가장 좋아하는 뒷동산의 맑은 시냇가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송사리들을 조심스레 놓아주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헤엄쳤습니다.

“기 시냇물은 참말로 옹골지네!
인자는 갇히지 말고 저 넓은 바다까지
쌩쌩 헤엄쳐 가그라! 잘 가라잉!”



한숨을 돌린 달래는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달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꿈을 꾸
었습니다.

“바람도 솔솔 부니 참말로 시방 살 것
같다. 나도 이다음에 키가 크면, 저 넓
은 바다까지 멋지게 모험을 떠날 수 있
겠제? 그러, 꼭 그렇게 될 거여!”



그때, 저 멀리 부엌 쪽에서 구수한 호박
죽 냄새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
고, 달래의 단짙 강아지 '바람이'가 꼬리
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달래야! 언능 와서 재미있고 맛있는 호박
죽 먹으렴! 정지에 불 때서 뜨끈할 때 먹
어야 맛나다!”

“어이구, 우리 바람이 왔냐? 너도 호박
죽 냄새 맡고 귀신같이 찾아왔구만!”



시냇가로 돌아가려던 달래가 제 발을 보
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송사리를
구하느라 벗어두었던 고무신 한 짝이 보
이지 않는 데다 벌써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라? 내 고무신이 어디 가버렸디
야?!

어매, 저것이 머시여!

내 하얀 고무신 한 짝이 어디로 훌쩍 가
버렸디야? 노을까지 벌겁게 지는데 큰
일 나버렸네!”



맨발로 가시 풀을 밟을까 봐 꼼짝도
못 하고 울상이 된 달래. 그때, 강아지
바람이가 달래의 옷자락을 쿡쿡 입으
로 당기며 멍멍 짖었습니다.

“멍멍! 달래야, 고무신 잃어버렸다고
요로코롬 맥없이 앉아만 있을 거여?
걱정 마, 내 털을 꼭 잡고 걸어가면 암
사랑도 안헛게!”



신기하게도 바람이의 마음이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용기를 내어 바람이의 부드러운 털을 잡고 분홍 빛 코스모스가 피어난 노을빛 언덕을 맨 발로 걸었습니다.

“금계! 바람이 네 말이 딱 맞다잉. 신발이 없어도 맨발로 밟는 흙길이 참말로 포근하고 따수와서 보드랍구만 그래!”



집 마당에는 다정한 언니가 시냇가에서
건져 올린 달래의 고무신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흙투성이가 된
달래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습니
다.

“오늘 새빠지게 고생했네! 달래야, 살
아감서 가끔 힘들고 쪼개 일이 있어도,
오늘처럼 늘 옹골지고 행복하게 살아가
그라, 알것지잉~?”

“그렇게! 고무신 배야, 우리 매일매일
보물상자가 가득 차는 것처럼 신나게 멋
진 하루를 만들어 가자!

우리는 언제나 맨날맨날 행복할 거야!”

작가프로필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의 마음에 몽글몽글한 온기를 전합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마법 같은 순간을 포착하여, 다정한 글귀와 포근한 이야기로 그려냅니다. 당신의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위로와 포근한 심표가 되어줄, 빛나는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완성

최혜민

본문 부안 사투리 모음

- * **오지게:** *야무지게, 엄청나게, 호되게
- * **겁나게:** *매우, 무척, 많이
- * **어매:** *어머니 (놀라거나 감탄할 때 쓰는 감탄사)
- * **머시여:** *무엇이냐
- * **짤해라:** *안타깝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 * **째간한:** *조그마한, 자그마한
- * **기둘려:** *기다려
- * **암시랑토 안혀:**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 * **인자:** *이제
- * **~응게:** *~이니까, ~하니까
- * **참말로:** *정말로, 진짜로
- * **옹골지네:** *속이 꽉 차서 실하다
- * **시방:** *지금, 현재
- * **정지:** *부엌
- * **언능:** *얼른, 빨리
- * **게미있다:** *깊은 맛이 있다, 감칠맛이 나다
- * **어디 가버렸디야:** *어디로 가버렸느냐
- * **벌겅게:** *붉게
- * **요로코롬:** *요렇게, 이처럼
- * **맥없이:** *기운 없이, 허탈하게
- * **금게:** *그러니까, 내 말이
- * **따수와서:** *따뜻해서
- * **새빠지게:** *혀가 빠질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억척스럽게
- * **살아감서:** *살아가면서
- * **쪼개:** *조금, 약간

